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5 | 눈 맞아 휘어진 대들~,
연못에 비 오는 소리~,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에 배우는 고전 시가 세 작품 (가), (나), (다)가 성격이 너무 달라서 한꺼번에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가)는 충신 이야기 같고, (나)랑 (다)는 사랑 이야기 같은데, 시험에는 어떤 포인트가 나오나요?

좋은 질문이란다. 세 작품이 주제는 다르지만 모두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래서 시험에서는 각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와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진단다. (가)의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나)의 '비'는 방해물을, (다)의 '오리나무'와 '취녕쿨'은 각각 임과 화자를 상징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



그렇군요. 그런데 (가)에도 '눈'이 나오고 (나)와 (다)에는 '비'가 나오는데, 이 자연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돼요. 다 똑같이 부정적인 소재 아닌가요?

그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된단다. (가)의 '눈'은 대나무를 휘어지게 만드는 시련이자 이성계 일파의 압력을 상징하지만, 대나무가 이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기에 오히려 그 절개를 부각하는 역할을 해. 반면 (나)의 '비'는 임을 보러 가던 꿈을 깨게 만드는 장애물이자, '비'를 화자의 슬픈 눈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단다. 마지막으로 (다)의 '바람비 눈서리'는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는 시련이지만, 화자는 이를 맞더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설정된 것이지.



아, '눈'과 '비'의 기능이 미세하게 다르네요! 그리고 (다) 작품은 (가), (나)와 달리 중간이 엄청 긴데, 여기서 '칭칭', '휘휘' 같은 표현이 왜 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썰미가 좋구나. (다)는 **사실시조라서 중장이 길어진 형태**란다. 여기서 화자는 임과 자신이 각각 '오리나무'와 '취녕쿨'로 변신한다는 **참신한 발상**을 하고 있어. 네가 말한 '칭칭', '휘휘' 같은 **음성 상징어**는 **취녕쿨이 나무를 빈틈없이 감아 올라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해서, 임과 결코 떨어지고 싶지 않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는 장치야.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로 출제된단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연물의 의미'랑 '화자의 태도',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아. 특히 (가)의 '눈'과 의미가 유사한 시어를 찾거나 다른 시어를 찾는 문제는 **고난도 문제로 자주 나오니 꼭 챙겨 봐야 해**. 그리고 (가)는 **색채 대비와 설의법을 통해 의지를 강조**하고, (나)는 **감각적 이미지로 슬픔**을, (다)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과 음성 상징어, 비유적 표현으로 사랑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표현상의 차이점도 꼭 비교해서 정리해 두렴!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5 | **눈 맞아 휘어진 대들~, 연못에 비 오는 소리~,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눈(계절적 배경을 드러냄. '대'를 휘어지게 만드는 부정적 소재. 시련, 이성계 일파를 상징함. <보기>에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고 <보기>를 바탕으로 시어를 이해하는 문제에 "눈"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며, 새 왕조 조선에 협력하기를 강요하는 세력을 의미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맞아 휘어진 대(절개 있는 충신)를 **뉘러서 굽다던고**(설의적 표현)]([]: 하얀 눈과 푸른 대의 색채 대비가 나타남. 시각적 이미지)

▶ 초장: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를쓰냐(설의적 표현으로 대나무의 절개를 강조함.)

▶ 중장: 눈 속에서도 푸른 대나무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대’가 지닌 속성은 **너뿐인가 하노라**(의인법과 영탄적 표현으로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함. ‘대나무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련 속에서도 지조를 지키는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는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종장: 대나무의 절개 예찬
- 원천석

*세한고절: 추운 계절에도 혼자 지키는 절개.

(나)

연(蓮)못에 **비 오는 소리**(화자의 꿈을 깨게 하므로 임과 화자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임. 청각적 이미지.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비 오는 소리"는 '꿈'을 통한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소재로 화자의 아쉬움과 슬픔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놀랍관데

▶ 초장: 연못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림.

임(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화자가 만나고 싶어 하는 대상) 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깨듯던고**(설의적 표현)

▶ 중장: 꿈에 임을 만나려 했으나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남.

[**앞 위에 구슬만 담겨 눈물 들듯**(떨어지듯. 하강적 이미지) 하더라]([]: '앞 위에 구슬'처럼 떨어진 '비'를 임을 못 만난 화자가 흘린 슬픔의 눈물에 빗대어 표현함. 시각적 이미지)

▶ 종장: 임을 만나지 못한 슬픔
- 작자 미상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5 |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연못에 비 오는 소리~, 임이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라서 굽다던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를쏘나

㉡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
라

- 원천석

*세한고절: 추운 계절에도 혼자 지키는 절개.

(나)

연(蓮)못에 비 오는 소리 그 무엇이 놀랍관데

㉢ 임 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깨듯던고
앞 위에 구슬만 담겨 눈물 들듯 하더라

- 작자 미상

(다)

임이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칙
녕쿨이 되어

㉣ 그 나무에 그 칙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
칭 저리로 칭칭 외오 풀어 옮겨 감아 얼어지고 틀어
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굽이 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晝夜長常) 뒤틀어져 감겨 있어

㉤ 동(冬) 선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
어질 줄 있으랴

- 이정보

1. (가)~(다)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지향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⑤ (다)는 (가)와 달리 선경후정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눈을 맞아 걸모습이 휘어졌을지라도 본질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대나무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련 속에서도 지조를 지키는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다.
- ③ ㉢: '비 오는 소리' 덕분에 임과 이별하는 꿈에서 깬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
- ④ ㉣: '칙녕쿨'이 '오리나무'를 감는 모습을 직유법과 음성 상징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⑤ ㉤: '바람비 눈서리'를 이겨 내고 사랑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 (가)와 (다)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율격을 지키고 있다.
- ② (다)는 종장의 길이를 길게 하여 대상의 모습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가)는 평시조에 해당하고 (다)는 사설시조에 해당한다.
- ④ (가)와 (다)는 종장의 첫 어절을 3음절로 시작하고 있으며,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조로 되어 있다.
- ⑤ (가)는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직선적인 언어로 생동감을 표현하였으며 (다)는 우아한 기품과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4. (나)의 '비'와 (다)의 '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비'는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다)의 '비'는 화자와 임의 결합을 위협하는 시련이다.
- ② (나)의 '비'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배경이고, (다)의 '비'는 화자의 분신으로서 임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③ (나)의 '비'는 임의 부재를 실감하게 하는 자연물이고, (다)의 '비'는 임이 올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형성한다.
- ④ (나)의 '비'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이고, (다)의 '비'는 화자와 임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 ⑤ (나)의 '비'는 화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매개체이고, (다)의 '비'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투영한 대상이다.

5. (다)가 <보기>를 변형한 것이라고 할 때, 둘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초장: 내 님은 오리나무 내 몸은 처녕쿨
 3 4 3 3

중장: 그 나무 처녕쿨이 칭칭칭 감아 있어
 3 4 3 4

종장: 비바람 눈서리 처도 떨어질 리 있으랴
 3 5 4 3

*참고
 1. 평시조는 3장 6구 형태를 취함.
 2. 숫자는 음수율을 나타낸 것임.

- ① (다)의 초장에서도 <보기>처럼 임과 화자의 모습을 자연물에 투영하고 있다.
- ② (다)의 중장에서는 <보기>와 달리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되는 사물로 화자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다)의 종장에서는 <보기>와 달리 감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다)의 종장에서도 <보기>처럼 설의적인 의문 형식으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다)는 <보기>의 종장을 길게 늘어 써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눈 맞아 휘어진 ㉡ 대를 누라서 굽다던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를쏘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원천석
 *세한고절: 추운 계절에도 혼자 지키는 절개.

(나)
 연(蓮)못에 ㉢ 비 오는 소리 그 무엇이 놀랍관데
 임 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깨듯던고
 앞 위에 구슬만 담겨 눈물 듯듯 하더라
 - 작자 미상

(다)
 임으란 회양 금성 ㉣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처녕쿨이 되어
 그 나무에 그 처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오 풀어 옹게 감아 얽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굽이 나게 휘
 휘 감겨 주야장상(晝夜長常) 뒤틀어져 감겨 있어
 ㉤ 동(冬) 선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
 질 줄 있으랴
 - 이정보

6. (가)~(다)의 화자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감을 확인하며 안분지족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대상과의 차이점을 인식하며 좌절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대상에게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대상에게서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자연물에 투영하여 체념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초월적 세계를 동경하며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대상의 불변하는 속성을 예찬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대상과 하나가 되어 시련을 이겨 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미래를 낙관하며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나무를 휘어지게 만드는 존재로,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이나 시련, 압력을 상징한다.
- ② ㉡: 눈을 맞으면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존재로, 화자가 지향하는 지조와 절개를 지닌 충신을 상징한다.
- ③ ㉢: 화자와 입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입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④ ㉣: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분신인 '첨녕쿨'이 얽혀 들어가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 ⑤ ㉤: 화자와 임의 결합을 방해할 수 있는 흑독한 시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견고할 것임을 드러낸다.

8. (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눈'을 맞고 '휘어진 대'의 외면적 모습에 주목하여, 시련 앞에서 좌절하는 나약한 존재를 비판하고 있다.
- ② '눈 속에 푸를쏘냐'라는 반문을 통해, 겉모습과 본질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현실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 ③ '대'가 시련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굳건한 지조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 ④ '굽을 절이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세한고절(歲寒孤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외롭게 절개를 지키는 것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고난도 9. (가)와 <보기>에 등장하는 자연물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은님 여희옵고
내 막음 돌 뒤 업서 냇궤에 안자시니
져 물도 닢 안 궤혀 우러 밤길 네뵈다
- 왕방연

- ① (가)의 '눈'과 <보기>의 '물'은 모두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기능한다.
- ② (가)의 '대'는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덕성을 지닌 존재로, <보기>의 '물'은 화자의 슬픈 감정을 대신 표현해 주는 존재로 기능한다.
- ③ (가)의 '눈'은 화자의 의지를 시험하는 시련으로, <보기>의 '냇궤'는 화자가 안식을 얻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 ④ (가)의 '대'와 <보기>의 '물'은 모두 인간과 달리 변치 않는 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화자와 대조를 이룬다.
- ⑤ (가)의 '눈'과 <보기>의 '물'은 모두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부각하는 배경으로만 기능한다.

10.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독백의 어조로 화자의 애상감을 드러내고, (다)는 말을 건네는 어조로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나)는 꿈과 현실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결핍을 부각하고, (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생동감을 주고, (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화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⑤ (나)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다)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굳은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가)의 중장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를쏘냐’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눈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대나무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의 중장 ‘떨어질 줄 있으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바람비 눈서리’를 맞아도 떨어지지 않을 오리나무와 침녕쿨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① (가)는 ‘눈(흰색)’과 ‘대(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만, (나)에는 뚜렷한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다)에는 ‘칭칭’, ‘찬찬’, ‘휘휘’ 등의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으나,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가)는 대나무를 ‘너’라고 부르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나)는 독백체 형식이다.
- ⑤ (가)는 대나무의 모습(경치)을 보고 감회를 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형적인 선경후정이라기보다 대상의 속성 예찬에 가깝고, (다) 역시 선경후정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정답 ③

㉞은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꿈속에서나마 입을 보러 가던 중에, 빗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 입을 만나지 못하게 된 상황을 탄식하는 내용이다. 즉 임과의 만남을 방해한 빗소리를 원망하며 만남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① ‘눈 맞아 휘어진 대’는 겉모습은 시련에 의해 휘어져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인 절개는 굽히지 않았음을 ‘뉘라셔 굽다던고’라는 설의적 의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 ② ㉞에서 화자는 대나무를 ‘너’라고 지칭함으로써 인격을 부여하였으며, ‘세한고절’이라는 표현을 통해 추위(시련)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지키는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다.
- ④ ㉞은 침녕쿨이 오리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모습을 ‘납거미 나비 감듯’이라는 직유법과 ‘칭칭’, ‘찬

찬’, ‘휘휘’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매우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㉞의 ‘바람비 눈서리’는 문맥상 ‘오리나무’와 ‘침녕쿨’의 결합을 방해하거나 시련을 주는 외부적 요인을 상징한다. ‘떨어질 줄 있으랴’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3. 정답 ⑤

(가)는 정형화된 형식을 갖춘 평시조로, 절제된 시어와 ‘세한고절’ 등의 한자어를 사용하여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는 우아하고 안정적인 기품을 보여준다. 반면 (다)는 형식이 파격적으로 길어진 사실시조로, ‘칭칭’ 등의 음성 상징어와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직선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① (가)는 평시조의 기본 형식인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잘 지키고 있으며, 4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다)는 사실시조의 특징인 중장의 파격적인 확장이 나타나 있다. ‘그 나무에 ~ 감겨 있어’까지 길어진 호흡을 통해 화자와 임이 얽히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가)는 형식이 정형화된 평시조이고, (다)는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진 사실시조에 해당한다.
- ④ (가)의 중장 첫머리는 ‘아마도(3음절)’, (다)의 중장 첫머리는 ‘동 선달(3음절)’로 두 작품 모두 시조의 고정된 음수를 제약을 지키고 있으며, 시상 전개 역시 초장-중장-종장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4. 정답 ①

(나)의 ‘비’는 입을 보러 가던 화자의 꿈을 깨게 만드는 원인으로,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기능을 한다. (다)의 ‘비’(바람비 눈서리)는 오리나무와 침녕쿨로 얽힌 화자와 입을 떼어 놓으려 하는 외부적 고난으로, 두 대상의 결합을 위협하는 ‘시련’을 의미한다.

- ② (다)에서 화자의 분신은 ‘침녕쿨’이며, ‘비’는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 ③ (다)의 ‘비’는 겨울의 혹독한 날씨를 의미하므로, 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설정된

역경이다.

④ (나)의 ‘비’는 꿈을 깨게 하여 화자에게 안타까움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므로 갈등 해소의 계기로 볼 수 없다. (다)의 ‘비’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는 외부의 시련이다.

⑤ (나)의 ‘비’는 화자의 만남을 방해했으므로 위로의 매개체가 될 수 없다. (다)의 ‘비’ 역시 임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외부의 시련을 의미한다.

5. [정답] ②

(다)의 중장에도 <보기>와 같이 ‘오리나무’, ‘침녕쿨’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감정 이입의 대상은 아니다.

① (다)와 <보기> 모두 초장에서 임을 오리나무, 화자를 침녕쿨에 투영하고 있다.

③ (다)의 중장에서는 ‘옹게 감아’, ‘휘휘 감겨’, ‘뒤틀어져 감겨’와 같이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임과 함께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보기>의 중장에서는 감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

④ (다)와 <보기> 모두 중장에서 ‘있으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⑤ (다)는 중장이 장형화된 사실시조로, 중장에서 침녕쿨이 오리나무를 감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보기>는 그렇지 않다.

6. [정답] ④

(가)의 화자는 눈(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푸른 대나무(대상)를 보며 그 ‘세한고절’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자신을 침녕쿨로, 임을 오리나무로 설정하여, 침녕쿨이 되어 오리나무를 칭칭 감아 하나가 됨으로써 어떤 시련(바람비 눈서리)이 와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는 대상의 속성 예찬, (다)는 대상과의 합일 의지를 보인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① (가)의 화자는 대나무와 정신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주제 의식이 안분지족(분수에 편안해함)과는 거리가 멀다. 총절을 다짐하는 비장한 태도에 가깝다. (다)의 화자는 대상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합하려 한다.

② (가)에서 인생무상을, (나)에서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에서 ‘잎 위에 구슬’처럼 떨어진 ‘비’가 임을 못 만난 화자가 흘린 슬픔의 눈물에 빗대어져 표현되고 있지만, 이를 ‘체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다)의 화자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현실 대응 태도를 보인다.

⑤ (나)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이 아니며, (다)는 막연한 미래 낙관이 아니라 현재의 강렬한 사랑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7. [정답] ③

(나)에서 ㉔ ‘비 오는 소리’는 화자가 임을 만나려 가던 꿈을 깨게 만드는 원인이다. 즉, 화자와 임의 만남(꿈속에서의 재회)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화자와 임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㉔ ‘눈’은 대나무를 휘어지게 만드는 부정적 소재로, 고려 말의 정치적 시련이나 이성계 일파의 압력을 상징한다.

② ㉔ ‘대’는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절개를 상징하며, 화자가 예찬하는 대상이다.

④ ㉔ ‘오리나무’는 (다)의 화자가 사랑하는 임을 비유한 대상이며, 화자의 분신인 침녕쿨이 감고 올라가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

⑤ ㉔ ‘동 선달 바람비 눈서리’는 침녕쿨과 오리나무가 얽혀 있는 상태를 위협하는 외부의 시련이지만, 화자는 ‘떨어질 줄 있으랴’라고 하며 이를 이겨 낼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8. [정답] ③

이 작품은 눈을 맞아 휘어진 ‘대’의 외면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내면의 속성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지조와 절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① 화자는 ‘휘어진 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푸른 대의 절개를 예찬하며 옹호하고 있다.

② 현실과 타협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변치 않는 본질(절개)이 더 중요함을 설의법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다.

④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굳은 절개를 지키는 ‘대’에 대한 예찬

적 태도가 나타난다.

⑤ ‘세한고절’은 추위 속에서도 외로이 절개를 지키는 높은 경지를 의미하는 긍정적 시어로, 예찬의 의미 이미지 회의적 인식이 아니다.

9. **정답** ②

(가)의 화자는 시련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의 ‘세한고절’을 예찬하며, 그러한 덕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한다.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우리’ 가는 ‘물’에 투영하여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① <보기>의 ‘물’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지 극복의 대상인 장애물이 아니다.

③ <보기>의 ‘넋?’는 화자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은 비애의 공간이지 안식의 공간이 아니다.

④ **[매력적인 오답]** (가)의 화자는 ‘대’의 변치 않는 속성을 예찬하며 자신 또한 그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보기>의 화자는 ‘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므로 두 작품 모두 화자와 자연물이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의 ‘눈’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화자에게 고난을 주는 능동적인 시련을 의미한다.

10. **정답** ②

(나)는 ‘꿈’을 통해 임을 만나려 했으나 ‘비 오는 소리’(현실)로 인해 깨어남으로써 만남이 좌절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는 꿈(만남)과 현실(이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결핍)을 부각하는 효과를 준다. (다)는 사람이 나무와 철렁쿨이 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만큼 임과 단단히 결합하고 싶다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① (나)는 독백의 어조가 맞지만, (다) 역시 임을 향한 다짐이나 독백에 가깝지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설득하는 어조로 보기는 어렵다. (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성격이 강하다.

③ **[매력적인 오답]** (나)는 빗방울(시각)을 눈물에 비유하거나 빗소리(청각)로 인해 슬퍼하는 내용이 지, 청각을 시각화(공감각)한 것은 아니다. (다) 역시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화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주된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자연물(비, 빗방울)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즐거움’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다)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해 굳은 신념(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